



‘빠른 버스’를 타고 ‘느린 쉼표’를 찍다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

1 담양창평슬로시티 삼지내마을 돌담길. <담양군 제공>



정지효 작가



정지효 여행작가의 남도투어

Happy-Bus-Day

<17>담양 농어촌버스 311-4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돌담길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 없이 담양 창평의 삼지내마을을 첫손에 꼽는다. 언제 걸어도 마음이 다보록해지는 이 정겨운 마을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담양 창평으로 향하는 ‘311-4번’ 버스를 타야 한다.

담양 농어촌버스 311-4번 노선은 꽤나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버스에 몸을 실으면 광주 도심의 광천치안센터, 경신여고, 신안고, 안보회관, 문화동 정류장을 차례로 훑으며 도시의 아침 풍경이 펼쳐진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출근길을 재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들의 분주한 숨결이 버스 안을 가득 채운다. 그런데 문화동을 지나고 나면 버스는 돌연 호남고속도로 위로 올라타 버린다. 도시의 끄트머리에서 시작된 여정이 고속도로의 시원한 바람을 만나 속도를 올리는 순간이다. 보통의 담양행 버스와 달리 담양읍을 들리지 않고 곧장 창평으로 내달리는, 이른바 직행 시내버스인 셈이다.

버스는 광주에서 담양까지 정류장마다 차례로 사람들을 부려놓고 또 품으며 담양을 향해 나아간다. 차창 밖으로 스쳐 가는 도시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새롭다. 문화동을 뒤로한 버스는 이내 호남고속도로로 진입하고, 도시의 정체를 벗어던진 버스의 심장 박동이 시원하게 빨라진다. 차창을 때리는 바람의 속도감이 기분 좋게 얼굴을 스친다. 도심에서 고속도로로, 그리고 다시 고즈넉한 시골 마을로 이어지는 다이내믹한 여정은 버스 여행이 아니면 맛보기 힘든 짜릿한 변주다. 광주를 출발한 지 불과 45분 남짓,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내달린 311-4번 버스는 승객들을 창평시장 정류장에 살포시 내려놓는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라진다. 때연과 소음이 가득했던 도시의 잔상은 온데간데 없고, 탁 트인 하늘과 넉넉한 들판이 여행자를 반긴다. 창평시장 정류장에서 목적지인 삼지내마을까지는 고작 250에서 350미터, 성인의 걸음으로 3분에서 5분이면 족한 거리다. 하지만 이 짧은 도보 여행은 현대의 시간에서 전통의 시간으로 건너가는 마법 같은 차원 이동의 길이다.

삼지내마을은 1510년경에 만들어진 마을로 동편에는 월봉산, 남쪽에는 국수봉이 솟아 있다. 마을 앞을 흐르는 천의 모습이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 하여 삼지(내)천이라 불렀다고 한다. 월봉산에서 발원한 시냇물 세 갈래가 모여 흐르는 마을, 시간이 고여서 천천히 흐르는 연못 같은 곳이다.

발걸음을 옮겨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유려하게 휘어진 돌담길이 우리를 맞이한다. 2007년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의 진면목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마

자연서 얻어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

500년 대대로 지켜온 3.6m 토석담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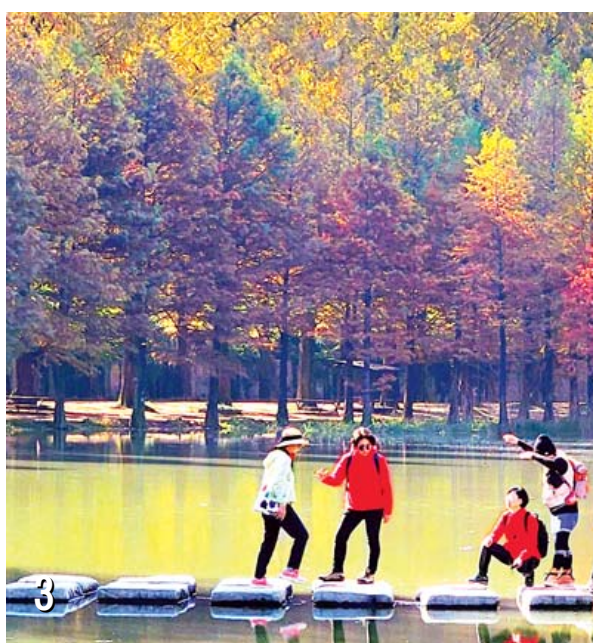
천천히 걸어야 볼 수 있는 진짜 풍경

가마솥 문근히 우린 국물 속 채우면

우리가 잊었던 일상의 속도 되찾아

을 고갈길을 굽이굽이 감싸고 있는 36킬로미터의 토석담(등록문화재 제265호)은 5백여 년동안 대대로 지켜 온 마을의 전통이자 백미다. 반듯하게 깎은 인공의 돌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둥글둥글한 돌맹이들을 황토에 버무려 엮은 품새가 참으로 정겹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 돌들이 서로 기대어 긴 골목을 만들었다. 참 신기한 일이다. 제각각인 돌인데 함께 있으니 담이 되었다. 어쩌면 사람 사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둥근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조금 튀어나온 사람도 있다. 모두 똑같이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삼지내마을 돌담을 보고 있으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민 덩굴식물과 기와지붕 위로 뿔



2.죽독원
3.메타세쿼이아길 정경다리
4.창평국밥
<광주매일신문 DB>



어지는 햇살을 따라 걷다 보면, 뽕뽕하게 당겨져 있던 마음의 끈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여행의 압박도 잠시 내려놓게 된다. 유명한 건물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뛰어갈 필요도 없다. 돌담길을 걷다가 담장 너머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오래된 한옥 처마 밑에서 잠시 멈추고, 골목이 갈라지면 마음 가는 쪽으로 걸으면 그만이다. 길을 잘못 들어도 괜찮다. 오히려 그런 골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삼지내마을의 매력은 새것처럼 잘 꾸며놓은 옛 마을이 아니라는 데 있다. 사람이 실제로 살아가는 생활공간 속에 돌담과 한옥, 골목과 마당이 이어진다. 그래서 삼지내마을에서는 조금 천천히 걸어야 한다. 빨리 걸으면 돌담만 보일 뿐이다. 천천히 걸으면 돌 사이에 핀 풀꽃이 보이고, 처마의 선이 보이고,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늘이 보인다. 슬로시티라는 말도 어쩌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천천히 걸으며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 걷다가 예쁜 꽃과 나무를 만나면 한 번쯤 멈추는 것, 이렇게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속도를 잠깐 되찾아보자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돌담길 산책으로 마음을 비웠다면, 이제 남도의 깊은 맛으로 속을 채울 차례다. 나는 으레 지역의 오랜 노포들을 살피는 것을 여행의 중요한 의식으로 삼는데, 창평은 그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는 곳이다. 마을 시작에 자리한 창평국밥거리는 수십 년 세월을 끌어낸 진득한 육수 냄비로 길손을 유혹한다.

가마솥에서 문근히 우러낸 국물에 밥을 토퍼하여 내어주는 창평국밥 한 그릇에는, 뽕뽕하다 딱끈한 남도의 정이 담겨 있다. 긴 세월 한 자리를 지켜온 노포의 국물 맛은,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없는 조리법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문화유산이다. 시장 안을 가득 메운 정겨운 사투리와 팔필 끓는 가마솥의 열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을이 간직한 또 다른 형태의 생명력을 발견하게 된다.

가장 빠른 길을 달려와 만난 가장 느린 마을. 담양 창평 삼지내마을에서의 하루는 속도에 지친 우리에게 다정한 위로로 건넨다. 어쩌면 가장 훌륭한 여행은 가장 익숙한 버스 창틀의 프레임 속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가을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골목을 스치는 바람에서는 달콤한 휴내음이 묻어난다. 복잡한 내일의 일정일랑 잠시 덮어두고, 이 다정하고 파스한 바람에 마음을 활짝 열어 말려보시라. 서두를 것 하나 없는 평온한 풍경 속에서, 얼굴에 번지는 부드러운 미소 하나면 오늘의 여행은 그것으로 충분히 완성된 셈이다. 무거운 고민들은 털어버리는 차창 너머 바람결에 실어 보내고, 나를 위한 다정한 산책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 당신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곧 눈부신 여정이 될 테니까 말이다.